

익산시, 미취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장,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 개설 손톱 관리·영양·컬러 등 무료 제공... 월 평균 100여명 이용 '호응'

익산시가 지역 기관과 함께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네일케어' 운영 사업장을 기존 익산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취·창업을 돕고자 2020년 6월부터 '장애인 네일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4명의 여성장애인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톱 관리 △영양 △컬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무료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월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익산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장 추가 개설을 결정하고, 기존 사업장인 익산역 '섬섬옥수'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시는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에스알 등 4개

기관과 익산역 장애인 네일케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영규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이창현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이재철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경영인사처장, 박보경 (주)에스알 인재경영처장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익산역에 배치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사에 네일케어 매장을 무상 제공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장소 사용을 승인한다. (주)에스알은 재료비를 지원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네일케어 직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역점 '섬섬옥수'는 당일 열차 이

익산시, 새해 사자성어 '반구십리(半九十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정현을 시장, "내년에는 시 현안사업 위해 온 힘을 다 할것"

익산시가 2025년 시정 운영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반구십리(半九十里)'를 선정했다.

익산시는 새해 사자성어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20일 밝혔다.

반구십리(半九十里)는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시는 이번 한 해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사업 선정, 도내 최초 민간 특례 도시공원 3곳 왕궁 등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케도에 올려며 '위대한 도시 익산'의 저력을 보여줬다.

또한 △다이어롬 누적 발행액 2조 원 돌파 △도내 최대 수준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명품 아파트 공급과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확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신청사 개청과 함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선포해 익산만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한(韓) 문화 발상지'라는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한문화대전을 부활시키고 시민의 눈을 개천절로 변경해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기획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성정의 발판을 마련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선정과 그 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으로 식품·바이오 산업 선도 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미가 남다른 한 해를 보냈다.

시는 전방위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만큼 이러한 굵직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도 △KTX 익산역 확장 △택배 왕도 경관 회복을 위한 국도 1호선 일부 구간 지하화 △산북천 개선 복구 등 역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25년에는 반구십리의 마음으로 목표했던 사업들을 단단히 마무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 익산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위한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 개최

익산시가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췄다.

시는 지난 20일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2024년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철도정책 연구 결과와 전문가 지문을 바탕으로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남궁근(전 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총장)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분과별 연구 과제 발표와 정책제언 등이 이어졌다.

분과별 연구과제로 5건이 발표돼 익산시의 미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서해안권 익산·군산·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교통인프라 구축계획 △익산시 중심의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상 △익산역 현황과 복합환승센터 추진방안 등의 연구과제는 익산의 현황을 분석해 철도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동력을 제안했다.

또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부 협정에 따른 익산시 국제여객 및 화물 활성화 방안 △스마트모빌리티 기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 등의 연구과제는 국제 동향과 첨단기술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익산시철도정책포럼은 2019년도에 창립된 시 소속 위원회로, 철도와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전문가 29명의 위원과 5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철도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민안전, 전문성 가진 공무원 수 부족으로 위협"

군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서... 소상공인 민생 경제 안정 최우선 지원 등도 촉구

지난 20일 군산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김영일 의원 "군산새만금신항을 김제에 넘겨주려는 것인가"



김영일 의원



서동완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윤신애 의원

먼저 김영일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가 보여준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은 실망감을 넘어 걱정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새만금은 국가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발전의 전대로 성장하고 있기에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발 완료 후 관할권에 대한 일괄 결정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7공구 방수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고 지금도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수제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며 사업 구간별 안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산 새만금신항의 정당한 관할이 결정되고 군산항과 연계한 원도부 무역항으로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수 부족으로 위협받는 군산 시민안전"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다양한 직렬의 1,632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2006년 1,421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업으로 211명이 증가하여, 인구 20~30만 도·농복합시 평균인 1,604명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인건비로는 재정규모 대비 8.4%인 1,438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별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하고 주로 현장에 배치돼 군산시민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서 현재 378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행정과 일선에 투입되어 있다고 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 소상공인 민생 경제 안정 최우선 지원 촉구

서은식 의원은 지금의 탄핵 정국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상사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 촉진으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줄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용자지원과 이차보전 인상의 조기 집행에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설경민 의원, "농공단지 지정 목적·취지 처음부터 실패"

설경민 의원은 4개의 농공단지 군산시 기본계획 입주 우선순위에 현지역 고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수익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분양받는 길을 열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잇따라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추진 촉구 등

군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해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 및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안하지 말고, 기존 방파제 높이를 해수면 상승에 맞춰 높이고 강화할 것, 정부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마을 배수와 수로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여 대조기 침수지역 배수 및 수로 시스템을 강화할 것, 정부는 해안가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면 변동, 기상 변화, 파도 및 해일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경고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정부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을 지나 목표까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내년에 확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 △정부는 철도 낙후지역의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방파제 준거선 정비 건의안도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방파제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산심의, 행정사

무감사, 조례제정이 있고, 특히 예산심의는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을 집행부의 편성안을 심의하면서 선심성과 남비를 최소화하여 시민과 지자체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며 임하고 있으나 매년 추경성립 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자치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엄격하여야 할 회계질서를 광역의회의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할 경우, 교부부터 정산까지 직접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가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노후로 인해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 지원을 제정할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 걸 떠넘기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며, 우리의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25년도 예산 1조6523억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025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6,523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547억원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2건 23억 7,7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523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안의 세출사항 중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IFSC 클리닝 월드컵 4억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2억 5,200만원 △군산시 간여행정 1억 6,000만원 △군산오픈

골프대회(KPGA) 1억원 △한원 권장 지원 사업(상품권 구입) 1억원 등 52개 사업에 23억 7,700만 원을 삭감했다.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 민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

올 한해 각 분야에서 수상자 116명 선정

익산시가 지난 20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2024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시민을 격려하고 보답하는 자리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올해는 △주민자치 △농촌자원사업 △생활개선회 △국회추진 △생활원에 △치유농업 경진 △모범 이·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116명의 시민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

다.

이날 익산 시립합창단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나라'와 오페라 라트라 비아타 중 '축복의 노래'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현을 시장은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이 있어 내일의 익산이 더욱 희망으로 가득하다"며 "앞으로도 아직 발굴하지 못한 숨은 공로 시민을 찾아 감사와 격려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유희부지 활용 철길숲

'활력림·어울림' 구간 준공

지난 20일 군산시는 녹지공간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철길숲 4개 중 2개인(활력림·어울림) 1.2km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군산 철길숲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비밀길숲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사업 구간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산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까지 총 길이 2.6km의 철도 유희부지이다.

군산시는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4개 테마숲(활력림, 어울림, 추억림, 어울림) 안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활력림(사정산거리 일원)과 어울림(군산화물역 부지) 구간은 군산시의 역사를 담은 역사 가벽과 원형 보존된 철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구간에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가로수, 관목 및 초화류 등 약 12만여 본의 식물을 심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활력림 구간에서는 조경수 신품종인 핑크벨벳 500본을 심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식재비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수송로와 진포로의 철길 단절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며, 해당 작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